

엔카닷컴, 2월 중고차 시세 공개  
국산·수입차 전월비 6.66% 하락  
수입 평균 7.73%·국산 5.74% ↓

반도체 수급 정상화·고금리 여파  
신차 출고 빨라지고 신규 수요 부진  
가격 이점에 중고 수요 늘어날 듯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덩달아 '몸값'이 올랐던 중고차 가격이 연초부터 떨어지고 있다. 국산차를 비롯해 수입 자동차까지 중고차 대다수 모델들의 시세가 떨어지면서 신차와 차이 없는 가격에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도 중고차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엔카닷컴이 최근 공개한 올해 2월 중고차 시세에 따르면 이달 국산차 및 수입차 대표 모델의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6.66% 하락하는 등 확연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엔카닷컴의 중고차 시세는 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20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다. 주행거리 기준은 6만km로 무사고 차량이 대상이다.

무엇보다 수입 중고차의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7.73% 하락하는 등 수입차의 시세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2.0TDI 프레스티지 모델(디젤)의 이달 시세는 전월 대비 11.15%나 하락한 2847만원에 형성됐다. 지난해 연말 폭스바겐 이 티구안에 대해 20% 이상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게 중고차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니 쿠퍼 기본형 3세대(가솔린)는 전월 대비 10.80% 하락한 1995만원으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6세대 2.3리미티드 4WD 모델(가솔린)은 10.24% 떨어진 4040만원에 형성됐다.

또 시세 상승세를 이어가던 포르쉐의 카이엔(PO536) 3.0 쿠페는 8.28% 하락해 1억182만원,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ES300h 7세대 이그제큐티브도 8.02% 떨어진 5215만원의 시세를 보이

# 중고차 값 '내리막길'



고 있다. 수입차 중 인기 모델인 벤츠의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도 시세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W213 E250 아방가르드 모델은 9.37% 떨어지면서 4497만원, BMW 5시리즈(G30) 520i M 스포츠는 9.49% 하락해 4389만원이다.

국산차의 평균 시세도 전월보다 5.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의 K7 프리미어 2.5 GDI 노블레스(가솔린) 모델은 8.57% 하락해 2674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모닝 어반 프레스티지도 7.63%가 빠지면서 1002만원, 더 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디젤)는 6.10% 하락해 2525만원을 보였다. 쏘렌토 4세대 2.2 2WD 시그니처(디젤)는 6.75% 하락해 3491만원이었다.

현대차의 더 뉴 아반떼 AD 1.6 스마트(가솔린)

는 1460만원으로 5.88% 떨어졌고, 쏘나타(DN8) 2.0인 스피레이션은 2517만원으로 4.84% 하락했다. 이 밖에 제네시스 G80(RG3) 가솔린 2.5 터보 AWD(가솔린)는 4917만원으로 5.84%가 빠졌다.

이처럼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것은 최근 고금리로 인해 신차 수요가 감소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보복소비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요 신차 모델들은 한때 30개월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의 애타운 마음을 태웠다.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중고차가 신차의 가격을 뛰어넘는 등 가격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생산이 정상화됐고, 고금리 여파로 차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신규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중고차 가격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세가 확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차 대비 저렴한 중고차의 가격 이점이 부각되면서 중고차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아이오닉5' 글로벌 전기차 입증

캐나다 '2023 유틸리티 차' 선정  
현대차, 지난해 투싼 이어 2년 연속

현대차는 '2023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에 아이오닉 5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 올해의 차'는 캐나다 자동차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캐나다 현지 자동차 전문가 및 기자 4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2023 캐나다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비롯해 기아 텔루라이드, 미쯔비시 아웃랜더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치열한 접전 끝에 아이오닉 5가 최종 선정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투싼에 이어 아이오닉 5가 캐나다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최고의 차에 올라 2년 연속 이 부문 최고의 자리에 등극했다.

아이오닉 5는 지난해 캐나다에 처음 출시됐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로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 ▲다목적 실내 공간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컬러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충돌 안전성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 ▲무빙 에너지 시스템 개념의 V2L 등을 적용해 최상의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높은 상품 경쟁력에 아이오닉 5는 글로벌 수상과 호평 세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4월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으며, 10월 세계적인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올해의 SUV'에 EV 최초로 선정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더 강해진 중형트럭 '마이티'

연식 변경·선호 사양 탑재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트럭 '마이티'가 연식 변경 모델 '2023 마이티'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2023 마이티의 적재량 4t 모델인 에어브레이크에 신규 선택 사양 및 휠베이스 라인업을 추가하고 전 모델에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마이티 에어브레이크 모델은 경사로 발진 보조 기능을 탑재한 ZF 8단 자동변속기가 추가돼 조작 편의성과 차량 응답 및 반응 제어 성능이 강화됐다. 차량 내외부 청소에 필요한 에어건을 연결할 수 있는 에어건 포트 아웃렛이 기본 적용돼 상품성

을 높였다. 현대차는 ▲중축고상(3400mm) ▲장축고상(4050mm) ▲초장축고상(4400mm)으로 구성된 마이티 에어브레이크의 기존 휠베이스 라인업에 ▲단축고상(2950mm) ▲극초장축고상(4900mm) 2개의 라인업을 추가했다.

운전석 시트 코일 서스펜션을 기본화해 장시간 운전 피로도를 낮췄고, 운전석 시트 서스펜션 스프링 개수 증가 및 노면 진동 흡수력 강화를 통해 운전석 시트의 승차감을 개선했다.

2023 마이티의 판매가격은 ▲2.5t 5084만~5536만원 ▲3.5t 5224만~6004만원 ▲에어브레이크(4t) 5820만~6349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자동차 시장 봄날 오나...6개월 연속 성장

지난달 수출액 49억8000만 달러 역대 최고...전년비 21.9% 늘어  
내수 판매, 전년비 4.7% ↑ ...국내 생산량 13.2% 증가한 31만대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6개월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보다 21.9% 증가한 49억8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였다.

대수로는 11.3% 증가한 20만1000대로, 평균 수출 단가는 내연기관차가 약 2만달러, 친환경차가 3만달러였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전기차 수출은 늘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줄어 전체 수출 대수가 작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아는 19.7% 늘었다.

한국GM은 32.3%, 쌍용차는 42.1% 증가한 반

면 르노코리아차는 XM3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10.3% 줄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액은 작년보다 42.3% 증가한 17억9000만달러, 수출량은 29.8% 증가한 5만7000대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은 처음으로 35%를 돌파하며 수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아이오닉 5와 EV6의 꾸준한 해외 수요와 아이오닉 6의 미국 수출 개시에 힘입어 수출량이 작년보다 63.1% 증가한 2만7223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2만3956대)는 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5420대)는 24.6% 각각 증가했다. 수소차는 102.1% 늘어난 97대였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13.2% 증가한 30만7000대였다.

설 연휴로 조립 일수는 줄었지만 반도체 수급난이 개선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이 각각 18.8%와 5.3% 늘었고, 한국GM(43.9%)과 쌍용차(58.4%)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늘어난 생산량은 판매 증가로 이어져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4.7% 많은 11만7000대였다.

이 중 친환경차 판매량은 28.9% 증가한 2만3000대로, 하이브리드차(2만100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전기차 작년 보조금이 소진된 642대가 팔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3개 지표는 6개월 연속 모두 증가했다.

산업부는 "국산차기 승용차 내수 판매 상위 5개 모델을 모두 차지한 가운데 쌍용차 토레스의 월 판매량이 처음으로 5천대를 돌파하며 '톱5'에 진입했다"며 "수입차는 벤츠와 폭스바겐, 포드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아 '아중동 시장' 공략

아부다비 방산전시회 참가  
해외 첫 '수소 ATV 콘셉트카' 공개

기아는 20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국립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IDEX 2023'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IDEX 방산전시회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다.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기아는 2015년부터 참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기아는 해외에서는 최초로 '수소 ATV(수소동력 경전술차량) 콘셉트카'를 공개하고, 주요 시장인 아중동 지역을 겨냥한 소형 전술차량 '기갑수색차'와 '베어사시'를 전시한다.

'수소 ATV 콘셉트카'는 기존 엔진 구동 ATV 콘셉트카를 수소 동력을 활용해 한 단계 향상한 차량으로, 저소음 기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친환경 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

'기갑수색차'는 강화 방탄유리, 폭발 압력 완화 시트 등의 안전 사양을 적용해 뛰어난 기동성과 더



20일 개최한 'UAE IDEX 2023' 방산전시회 기아관에 전시된 기아의 전술 차량 모습. 왼쪽부터 수소 ATV 콘셉트카, 베어사시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 소형전술차량. (기아 제공)

불어 탑승자의 생존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베어사시'는 차량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과 엔진 등 파워트레인만이 장착되어 있어 장갑차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장비로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차량으로, 특히 베어사시를 활용한 각종 기동장비 개발이 활성화된 아중동 시장에서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아의 소형전술차량은 225 마력 엔진, 8단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16년 양산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 이동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와 협업 '스타트업' 찾아요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모집...다음달 12일까지 접수

현대차그룹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액셀러레이터'의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원 액셀러레이터'는 현대차그룹 내 협업팀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 협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혁신 기술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 및 개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협업팀이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선발 과정에도 참여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번 2023 상반기 제로원 액셀러레이터는 ▲차량 적용 기술(Autotech·4건) ▲탑승자 경험 향상 기술(In Car Ux·5건)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Service·4건) ▲건축물 관리 솔루션(Proptech·4건) ▲로보틱스(Robotics·5건) ▲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1건) ▲메타버스(Metaverse·3건) 등 7가지 주제 총 26건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법인 설립이 완료된 스타트업에 한해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접수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공식 홈페이지(https://zer01ne.zone/join-us/startup/)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서류, 인터뷰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대차그룹이 운영하는 제로원 펀드의 지분 투자 검토 대상으로도 선정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